

틱톡, 미국에서 퇴출될까



300자로 **hiphot** 섭취하는 **스낵뉴스**

미국 연방 의회가 28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앱 '틱톡' (Tik Tok)을 자국에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가 9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미국 전역에서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은 강제매각법 통과를 두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때문'이라고 말했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수행하는 바이트댄스의 소유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팔레스타인 인권 등 미국 제도권 언론에서는 찾기

어려운 콘텐츠가 틱톡에서 붐을 일으킨 일로 미국은 한차례 근육을 치른 적이 있다.

정보인권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법안이 반중 정서에 기댄 젊은 층의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라메시 스리니바산 캘리포니아주립대 정보학 교수는 "전세계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끼친 악영향을 살펴보면 주로 얘기되는 건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다. 틱톡만을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틱톡이 다른 빅테크 기업보다 더 악의적이거나,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더 극단적인 알고리즘으로 사용자를 양극화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SnackNews #미국틱톡퇴출 #정성현기자 #박지은편집디자인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안기는 '사랑의 향기'

기고

주현진

한국기록원 심의위원
광주문협이사



요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여간 쉽지 않다. 그만큼 세상의 인심이 메말라 있음이리라. 한 때 '탈무드'란 책이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다. 까까머리나 단발머리에 세일러복을 입고 여고시절을 보냈던 70~80세대라면 이 책에 대한 향수는 더욱 진하게 다가올 것이다. 친구나 이성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으레 등장하는 게 '탈무드'였다. 그 당시 '탈무드'를 읽지 않고서는 친구들과의 대화 단절은 물론 시쳇말로 요즘 유행하는 '왕따' 당하기 일쑤였으니 이 책에 대한 위력과 열풍은 그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다.

마빈 토케이어의 '탈무드잡연집'을 보면 '주위 사람으로부터 점점 젊어지시네요'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벌써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좀 더 나이를 먹으면 화장실에서 나올 때까지 지퍼 여미는 것을 잊게 된다'고 했다. 탈무드는 또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설명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모시듯 비위를 맞춘다.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열여덟 살은 말, 다 자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 아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

져주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라 했을까. 미운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도 하지 말고 조심 조심 알려주고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평안하다고 했다.

물론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는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이 되고 소신은 아집이 된다. 심지어 마이크를 잡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오죽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을까. 이 기려 하지 말고 저주시키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했다.

'위대한 연구'라는 의미의 '탈무드'는 나라 잃은 유대 민족들에게 5000년에 걸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왔다. 이 책은 곧 그들의 생활규범이었다. 이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회 지도자급이나 저명인사, 위정자들에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열 명 중 열 명은 곧 잘 탈무드를 추켜들곤 했다. 그만큼 이 책은 그동안 뿌리채 뽑혀가는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지탱해 준 큰 버팀목이었다는 얘기다. 탈무드는 단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생활에 도움이 될 유익한 교양 정보가 가득 담겨진 고전중의 고전이다. 그 가운데 '혜'에 대한 단상의 기록은 3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다. 재미도 있겠거니와 행간에 녹아 있는 삶의 지혜가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장사꾼이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을 사라'며 온 거리를 외치고 다녔다. 남보다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갈망하는 게 인간의 욕망인진라. 인생의 비결을 판다

는 장사꾼의 말에 너도 나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 때 장사꾼은 자신을 에워싼 거리의 사람들을 향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은 자신의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약자지킬 하던 주변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기를 쓰고 몰려든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더 높은 곳을 지향한다. 권력을 갖고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얻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고개 한번 돌리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자기만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높은 곳을 오르기 위해서는 한 번씩 앞도 보고 아래도 내려다볼 줄 아는 여유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자가 어찌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자연의 이치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을 포용하듯이 사랑도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그 사랑의 향기는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의 가슴 가슴에 진한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병원과 학교를 세워 열악한 환경속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한 이 태석 신부님, 평생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던 테레사 수녀님, 이밖에도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평생을 봉사와 사랑으로 일관해 오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은 모두, 자신만의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이 있기에 그나마 세상은 향기가 있고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독자투고

최근 몇 년간 딥페이크 기술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하여 완벽한 가짜 영상이나 오디오를 만들어 낸다. 이로써 정보 조작, 사생활 침해,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문제점은 정보 왜곡의 문제이다. 딥페이크를 통해 제작된 영상이나 오디오는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이 인식할 때는 충분히 사실과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개인 정보 침해 문제이다. 딥페이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경우,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쾌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명예 훼손 문제이다. 딥

페이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모방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유포함으로써 명예 훼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개인과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 기술적 대응이다. 딥페이크를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별 알고리즘과 사용자들이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교육과 인식의 개선이다. 사람들에게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법적 대응이다. 딥페이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예 훼손과 개인 정보 침해에 관한 엄격한 법률 시행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딥페이크 기술은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여주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성빈 (보성경찰서 경무과 순경)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